

특징을 가진 건물이 많은 삿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월 삿포로에 온 중국 국제교류원 칸 닌사입니다. 처음 적는 기사입니다만, 삿포로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삿포로에 온 이후로 풍부한 자연, 맛있는 스프카레, 아이누문화, 특징적인 건물 등,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삿포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건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삿포로의 상징인 시계탑, 인기관광지인 아카렌가청사도 관광객이 매일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콘서트홀 키타라, 예술의 숲도 예술성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삿포로돔입니다. 도요히라구에 있는 삿포로돔은 외관이 거북이처럼 보여 귀엽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이므로 여러분께서도 가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첫 번째는 평일에 견학으로 다녀왔습니다.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는 돈투어는 편리하고 알기 쉽습니다. 자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야구선수의 식당, 메뉴, 그리고 탈의실까지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멋진 부분은 천연잔디인 축구 필드와 인공잔디인 야구 필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평소에 돔은 축구나 야구 경기 중 한 가지만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삿포로돔은 축구도 야구도 열릴 수 있어, 2004 년부터 축구 · 야구 두 개의 프로팀의 본거지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관전용의 돔만이 아닌,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쿄타워와 같은 높은 전망대가 아닌 적당한 높이에 있어 삿포로의 자연과 현대를 한번에 느낄 수 있어 최고입니다.



<삿포로 돔의 전망대>

두 번째는 주말에 관전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야구는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매우 드문 스포츠입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시합개시 2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삿포로돔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돔이 축제 회장처럼 변신을 했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만원으로 가득찬 회장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람석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삿포로돔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야구관전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삿포로 돔의 시합 풍경>

삿포로에서의 생활은 아직 6 개월 이상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특징적인 삿포로의 건물을 더 많이 보러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건물을 통하여 삿포로에 대해 더 알아가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1조 니시 2초메
TEL : 011-211-2032、FAX : 011-218-5168